



## “환경기술인의 위상강화를 위해 일조할 터”

“환경기술인은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팀장은 환경기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러한 업적과 공로로 이번에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장식에서 영예의 최고상인 금강대장을 수상했다. 이에 본지는 이 팀장과의 일문일답식 인터뷰를 가졌다.(편집자 주)

대담: 김병오 편집국장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제18회 대한민국의 환경기술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강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먼저 수상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 환경인으로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번 환경기술인의 날 금강대장을 수상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국의 환경기술인 여러분과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곳곳에 환경보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많은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전국의 모든 환경기술인들과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해 가는 여러분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 이번 대한민국의 환경기술인 시상식에서 어떤 분야가 심사에 크게 반영됐다고 보는지.

▲ 이번 심사에서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폐기물분야 그리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환경을 실천해 온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심사 했다고 보며 그중에서도 특히 생산현장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효과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심사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2002년도에 L/C팀 팀장을 맡은 후 생산 공정 개선을 함으로서 폐수발생량을 36%저감하고 생산성을 30%이상 향상한 점이 특히 심사에 크게 반영됐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환경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략히 해주신다면.

▲ 국내최초의 진주안료 생산업체로서 1977년 7월(주)세모안료사업부로 창설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로 세모화학(주)으로 설립되어 무독성 진주안료를 개발하여 남동공단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1998년 1월 8일부로 (현 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로 인수되

었습니다.

엔겔하드 그룹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표면 및 과학에 주력하며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엔겔하드의 탁월하고 풍부한 능력은 전세계 어느 기업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엔겔하드는 구조와 표면의 특성을 바꾸어주는 기초 재료, 주로 광물질을 만듭니다. 기계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구조와 표면의 크기, 형태, 다공성, 화학적 특성을 바꿈으로써 중요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합니다. 현재 엔겔하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흡착제, 살균제, 건조제, 분자제, 특수제올라이트, Aurora특수필름, 갈라 염료 및 분산제, Mica첨가제, 제지 염료 및 증량제, 귀금속 분말, 페이스트, 잉크, 특수안료, 특수 애터펄자이트 첨가제, 특수 카울린 증량제 안료, Surround 작물 보호제, 열분산 코팅제(가전·자동차·오토바이·숯가마·디젤·산업용·오존·VOC) 등에 사용되는 촉매를 생산 공



### III 표지인물과의 만남

급하고 있습니다.

엔겔하드는 고객들이 제품과 공정의 효과, 생산성, 장점, 안전성, 환경 친화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입니다.

♣ 회사의 환경분야 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 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인천공장은 대기 4종, 수질 4종 사업장이며 남동공단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기부문에서는 현재 활성탄 흡착탑 3기, Scrubber 1기와 공정용 Bag Filter 8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야는 회사에서 물리·화학적 처리를 한후 30%를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최종 처리수는 승기종 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최종 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분야에는 종류별로 분리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지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드럼통은 재활용 및 납품업체에서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 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인천공장의 환경개선 및 연간 환경 캠페인을 소개한다면.

▲ 저희 공장은 향후 3개년간 화학물질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2005년 5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법 규제를 떠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부문의 환경활동을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환경적마인드를 갖게하여 생산 활동전체에 대한 친환경적인 업무는 물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내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하천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지역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역사회 환경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E3I(자체 환경감사)를 통하여 글로벌수준에 맞는 환경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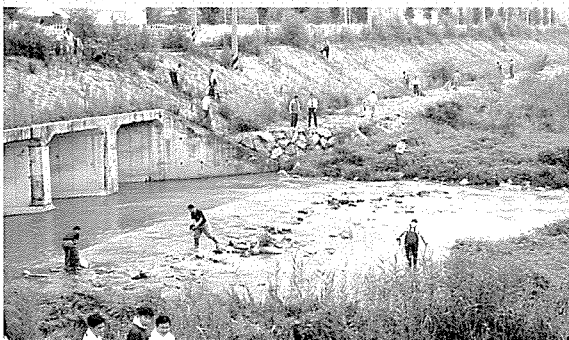
♣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있어 개선점이 있다면.

▲ 환경기술인으로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확



▲ 2005년 6월 자발적 협약 사진

▼ 2006년 7월 하천정화 사진



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엄격히 하여 환경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 설비투자를 하여 환경보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신바람나게 근무 할 수 있는 지도 단속도 병행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분야는 민간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현재 인천지역환경기술인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향후 대관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저는 환경기술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환경기술인협회는 그동안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어오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인천환경기술인협회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무관심하면 환경인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아무도 우리 환경기술인들을 발전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젠 과거의 묵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많다고 해도 도태되고 맙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Paradigm을 구축하여 시민·학생·관 그리고 많은 환경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역 환경보전뿐 아니라 하나뿐인 우리 조국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전국의 환경기술인을 위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이 도전과 변화를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인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



▲ 2006년 9월 환경 한마음 체육대회 사진

▼ 2006년 사내환경교육 사진



습니다. 이 힘을 소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환경기술인이 아니며 부끄러운 환경기술인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맡은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인들은 후대자손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기술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죄지우지한다는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